



제7강 - 비극의 시작을 기다리는 위대한 건강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1. 실패자가 들려주는 복수라는 도덕의 복소리

복소리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두들겨대는 소리라면 당연하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쳐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복소리의 의미도 달라진다. 복을 치는 자가 용맹한 심장을 가진 건강한 전사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온 주눅 든 허약한 체질의 실패자인가? 이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전혀 다를 것이다. “무서운 맹수”(337쪽)는 자신을 위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모든 경우에서 당당하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수치심은 그의 것이 아니다. 맹수가 만들어내는 소리에도 도덕이 있다. 이런 도덕은 강한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함께 집단을 지어서만 살 수 있는 “무리동물”(같은 곳)은 서로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도덕을 요구한다. 이런 도덕은 개인성을 거부한다. 오로지 “전체를 위한 기능”(92쪽)으로 변질된 개인성만이 허용될 뿐이다.

도덕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함께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기된다는 것은 진리다. 하지만 맹수의 도덕인가 무리동물의 도덕인가가 문제가 된다. 자유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속된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약자가 사회의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도덕은 강자를 구속하고자 한다. 기를 펴지 못하게 한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약자의 논리로 영리하게 구축된 도덕 안에서 “수세기 동안 젊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해왔다.”(반시대Ⅲ, 348쪽) 힘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이 힘을 펴지 못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상을 견뎌야 했다. 젊은 이들은 “집과 고향으로부터 소외되어 간악한 난쟁이들에게 사역당해”(비극, 177쪽)야만 했던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약자의 도덕을 종식시키고 강자의 도덕을 펼치고자 한다. 약자를 위한 도덕보다 강자를 위한 도덕을 지향한다. 그렇다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도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도와 강해지도록 응원하는 그런 도덕을 창출하고자 한다. 모두가 강해져서 각자가 웃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니체가 염원하는 세상은 모든 개개인이 삶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그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상이다. 모두가 각자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물론 이 또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뉘 놓고 살 수만은 없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알고 있는 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그리스도교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완벽하게 건립된 건축물이 - 이것은 로마인들의 최후의 건축이었다! - 단번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353쪽)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중세의 빙하 속에서 살고 있다.”(반시대Ⅲ, 427쪽) 기독교 아니 더 폭넓게 보아 종교적 신앙 자체를 극복해나가는 일은 이성적 존재가 끊임없이 접해야 하는 숙제이다. 늘 정답을 추구하고 또 동시에 그 정답을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극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다음의 잠언을 한번 읽어보자.

정신에 대한 복수 그리고 도덕의 또 다른 배경들. - 그대들은 도덕이 가장 위험하고 음

흥한 변호인을 어디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여기 한 사람의 실패자가 있다. 그는 정신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신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 만큼의 교양은 갖추고 있으며 권태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경멸자이다; 상속받은 얼마간의 재산으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노동의 축복"과 "일상의 일" 안에서의 자기망각이라는 최후의 위로조차도 빼앗겨버린 자이다. 그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 아마도 그는 게다가 몇 가지 악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책들과 그가 소화해낼 수 없는 정신적 사고를 통해 점점 더 나쁜 버릇에 빠져들고 허영심의 자극을 받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중독된 인간은 - 왜냐하면 이러한 실패자에게는 정신도 독이 되고, 교양도 독이 되고, 재산도 독이 되고, 고독도 독이 되기 때문이다 - 결국 복수가, 복수에의 의지가 습관화되는 상태에 빠져든다. 이러한 인간이 더 정신적인 인간보다 우월해 보이는 외양을 만들어내고, 적어도 상상 속에서만 복수를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언제나 도덕성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그것은 언제나 거창한 도덕적인 말, 정의, 지혜, 신성함, 미덕 따위의 시끄러운 복소리다. (356쪽 이후)

패배자만이 복수를 생각한다. 복수를 생각하는 한 행복은 남의 일이 된다. 복수심에 불타는 한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이런 식으로 복수심을 불태우는 철학이 아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서 외쳐대는 소리는 대부분 함성이 아니라 한탄이며, 기껏해야 비명일 뿐이다. 허약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한탄으로는 허무주의적인 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복수심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아침, 291쪽)은 자기 책임이다. 개처럼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집에서 도망가는 모든 것에 복수한다."(아침, 247쪽 이후) 자유롭게 못난 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강함을 지향한다. 건강한 힘의 감정을 추구한다.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쓸데없는 복수심으로 자기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지"(아침, 383쪽)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자"(아침, 229쪽)는 모토 아래 실천적 삶을 꾸려나가고자 할 뿐이다. 허무주의적으로 실천하는 삶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주인이며 동시에 네 자신의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다. 과거에는 미덕이 너의 주인이었다"(인간적, 17쪽)라고. 주인이 되고 싶으면 강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빛을 보여주기 위해 허무주의는 어둠을 더욱 부각시킨다. 행복을 맛보기 위해 불행을 먼저 끌어들인다. 위의 인용문에는 "한 사람의 실패자"를 설명하고 있다. 실패자! 그는 "권태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경멸자"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실패자다. 실패자! 그는 "'노동의 축복'과 '일상의 일' 안에서의 자기망각이라는 최후의 위로조차도 빼앗겨버린 자"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즐기지 못하는 자다. 자기를 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욕망과 결합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귀찮은 자다.

실패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간다. 한마디로 만족을 모른다. 실패자는 자기 자신이 왜 외로운지도 모른다. 왜 친구가 안 생기든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지를 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자”(아침, 383쪽)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겁하게도 늘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실패자가 보여주는 일상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책들과 그가 소화해낼 수 없는 정신적 사고를 통해 점점 더 나쁜 버릇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차분하게 앉아 한 권의 책을 읽어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자 이름과 책 제목 그리고 그 속에서 언급되는 큰 개념들을 지식의 증거로 삼을 뿐이다. 한 두 마디만 더 주고받으면 더 이상 꺼내놓을 것이 없는 알팍한 지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심에 철두철미 “중독된 인간”이 되어 살아간다. 허영심이 배움의 열정을 가로막는다. 허영심이 배움의 길목을 차단한다. 허영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허영심이 사소한 지식을 거창하게 부풀린다. 중독은 어떤 경우에서든 부정적이다. 아무리 좋은 행동이어도 중독된 상태라면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지양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중독! 중독된 상태는 실패자의 모습이다. 무엇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실_實보다 허_虛가 더 크다. ‘유약무 실약허_{有若無 實若虛}’(1)와 같은 미덕은 찾아볼 수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했다. 통제되고 절제되지 않은 소리는 시끄럽다. 맑고 고운 소리는 얄매임이 없는 소리다. 영혼을 맑게 해주는 소리는 자유로운 소리다. 실패자는 무슨 소리를 내도 시끄럽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도 독이 되고, 교양도 독이 되고, 재산도 독이 되고, 고독도 독이 되기 때문이다.” 강한 정신에는 모든 것이 약이 될 수 있어도, 약한 정신에는 모든 것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 얄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집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해를 끼칠 뿐이다.

“결국 복수가, 복수에의 의지가 습관화되는 상태에 빠져든다.” 복수에의 의지! 이것은 “죽음에의 의지”(101쪽)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바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극복을 해야만 하는 의지이다. 버려야 할 의지이다. 실패자의 의지는 복수심으로 충만해 있을 뿐이다. 실패로 인해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으로 인식된 것을 그는 허영심으로 포장한다. 그 허영심이 그에게는 도덕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에게 도덕성은 “이러한 인간이 더 정신적인 인간보다 우월해 보이는 외양을 만들어내고, 적어도 상상 속에서나마 복수를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패자가 만들어내는 도덕성! 그것은 “언제나 거창한 도덕적인 말, 정의, 지혜, 신성함, 미덕 따위의 시끄러운 복소리”와 같다. 이념으로 가득한 소리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듣기 싫은 잔소리다. 능력이 결여된 자가 쏟아내는 불평불만의 실없는 소리다.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북한 소리다. 마음을 뒤흔들어놓을 정도로 유혹적이지 않다. 그것은 마치 가시가 없는 꽃은 꺾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진정한 “복수의 능력”(135쪽)이다. 가시도 없으면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은 약자의 도덕이다. 그런 도덕의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고대의 다른 종류의 노예들, 즉 의지와 이성인 약한 노예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노예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침, 405쪽) 기독교는 그러니까 실패자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맞설 수 없는 자가 상상에서나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약자를 위한 도덕을 만들어낸다. 세상종말이 올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실패로 만든 모든 원인들에 큰 재앙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한복음11:40)고. 상상은 끝을 모르고

1) : 공자의 논어, 스마트북 재판/2013, 243쪽; “유약무 실약허_{有若無 實若虛} : 도가 있으면서도 지니지 않은 듯이 내색하지 않음. 실약허_{實若虛}: 덕이 충실해도 텅 빈 것처럼 함.”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즐겨 사용되는 문구.

나래를 펼친다. 강자를 구속하는 논리를 창출해낸다. 강자가 느낄 만한 양심을 만들어낸다. 실패자들은 “영리한 침묵과 상냥함과 부드러움의 외투를, 치유 불가능한 자기경멸자와 치유 불가능한 허영심이 걸치고 돌아다니는 모든 이상주의자의 외투를 필요로 한다.”(357쪽) 그 외투로 무장한 영리함이 노예들을 위한 도덕을 만들어낸다. 자유정신에 저항하는 적대자들을 위한 도덕을 만들어낸다.

2. 문제로서 목적의식과 배우의 예술

“배를 움직이는 것은 노가 아니다”(인간적I, 131쪽)라고 니체는 말했다. 그렇다면 배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배가 인간의 비유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있어서 노는 무엇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 허무주의 철학이 내놓는 질문은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까지 왔다.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이성, 즉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많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마음을 흐려놓을 때가 있다. 마음이 흐려지면 생각하는 것만 본다.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니 다음의 잠언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자.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종류의 원인, - 내가 내딛은 가장 중요한 일보이자 진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행동의 원인이 이러저러한 행동, 이 방향으로의 행동, 이 목표를 향한 행동의 원인과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다, 전자의 원인은 어떤 방법과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축적된 힘의 양이다, 반면에 후자의 원인은 이 힘과 비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 대부분 사소한 우연에 불과한 것, 저 힘의 양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방출된” 것으로서 화약통에 대한 성냥의 관계와 같다, 소위 “목적들”과 더 많이 이야기되는 “생업”들을 나는 이 우연과 성냥에 포함시킨다, 이것들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위에서 말했듯이 소모되기 위해 물려가는 엄청난 힘의 양에 비교하면 거의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태고 이래의 오류에 근거하여 바로 이 목표에서(목적, 직업 등등) 충동의 힘을 보려한다, - 하지만 목표는 방향을 지시하는 힘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조타수와 증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향을 지시하는 힘인 조타수를 부정하는 일은 결코 없다, “목표”와 “목적”은 흔히 미화된 구실, 배가 우연히 빠져든 조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허영심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자기기만이 아닐까? 배가 그곳을 향하려는 것은 그곳으로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배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타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 우리는 “목적”의 개념을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 (358쪽 이후)

‘목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침놀》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뤄진 적이 있다. 그때는 “목적? 의지?”(아침, 146쪽)라는 제목의 잠언으로 허무주의적 사상이 피력되었다. 거기서 니체는 “기독교의 근본 감정” 내지 “기독교의 근본정신”을 문제시켰다. 이것은 “먼지 속에서 권력의 정신에 경배하고 심지어 먼지에 입 맞추는 것을 명했다”고 비판했다. 마치 콩깍지가 씌인 듯한 눈은 모든 것을 왜곡하여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목

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며 의지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의지가 아니다!”(아침, 149쪽) 즉 “믿음을 통해”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로지 “오류를 통해”(358쪽)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믿음이 사물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오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 “태고 이래의 오류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세워지고 해석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니체는 감히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내가 내딛은 가장 중요한 일보이자 진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행동의 원인이 이러저러한 행동, 이 방향으로의 행동, 이 목표를 향한 행동의 원인과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두 가지의 행동의 원인을 니체는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자는 “축적된 힘의 양”이고 후자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뿐이다. 전자는 “화약통”이고 후자는 “성냥”일 뿐이다. 전자는 “증기”이고 후자는 “조타수”일 뿐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축적된 힘의 양’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의 개념을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힘의 감정을 피력했었다. 힘에의 의지를 역설했었다. 그 의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목표’와 ‘목적’은 흔히 미화된 구실, 배가 우연히 빠져든 조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허영심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자기기만이 아닐까?”하고 의혹을 품는다. 목적? 그것은 허영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조차 허무함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배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배우의 문제에 대하여, - 배우의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내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어왔다. 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예술가”라는 위험한 개념 -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호의적으로 다루어진 개념 - 을 처리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었다(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허위, 권력으로서의 위장의 기쁨을 분출하는 것, 소위 “성격”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때로는 소멸시키는 것, 배역과 가면과 가상 안으로 들어가려는 요구를 지니고 있는 것, 모든 종류의 적응 능력이 넘쳐나지만 가장 가깝고 밀접한 일에도 유용한 봉사를 할 줄 모르는 것, 아마도 이 모든 것은 배우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본능은 하층 민중 출신의 집안에서 가장 용이하게 형성되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집안 출신은 압력과 강제를 번갈아 겪으면서 뿌리 깊은 종속성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야 하기 마련이다. 능숙하게 덮개에 손을 뻗치고, 새로운 상황에 항상 새로이 자신을 맞추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바람에 맞춰 외투를 걸치는 능력을 점차 갖추다가, 이를 통해 외투 자체가 되어 결국 동물들의 경우 사람들이 흉내라고 부르는 영원한 숨바꼭질 놀이를 체화하고 육화한 예술의 대가가 되고 만다. (359쪽 이하)

타인의 표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니체는 “프로테우스-본성”(인간적I, 328쪽)이라 칭했다. 그것은 여성성의 본질로 설명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남자의 본성은 의지요, 여자의 본성은 응낙이다”(134쪽)라는 주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런 프로테우스의 본성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니체의 허무주의적 시각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단정이라도 하는 것 같다.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

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늘 남의 눈치만 보면서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도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성에 “뿌리 깊은 종속성”으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모두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노예는 다른 게 노예가 아니다. “하루의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노예이다.”(인간적 I, 284)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노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늘 일에 쫓기고 피곤에 찌든 현대인은 이런 의미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상황에 항상 새로이 자신을 맞추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테우스 본성이다. 변신의 귀재라고나 할까. 이런 능력을 “체화하고 육화한 예술의 대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도덕은 자기 자신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 도덕적 사고는 자기 자신을 외면할 뿐이다. 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외투를 입으면서도 그 옷과 하나가 되어버려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할 때 “영원한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찾고자 하는 대상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놀이 말이다.

3. 유럽의 남성화를 지향하는 허무주의

니체는 유럽을 늙었다고 판단했다. “늙은 유럽”(329쪽)은 극복되어야 한다. 청춘을 되찾아야 한다. 젊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과제다. 이대로 있다가는 “권태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경멸자”(356쪽)가 되어버린 채 소중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니체를 철학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배를 움직여야 한다. 배를 움직이는 힘을 인식해내야 한다. 그 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배를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항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의 힘을 가장 잘 인식했던 인물로 니체는 나폴레옹을 꼽았다. 《아침놀》에서 니체는 그를 “고대적인 인간성”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나의 충동이 완전히 끝까지 사유되고 완성된 전형으로서 나폴레옹은 고대적인 인간성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에게서 소박한 구성과 하나의 동기 혹은 소수의 동기들을 독창적으로 형성하고 고안해내는 이 고대적인 인간성의 특징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아침, 256쪽 이후) 프랑스의 영웅을 칭송하다니! 1871년 독불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입장표명을 통해 정치적 개입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성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즐거운 학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남성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 -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사의 시대가 몇 세기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 한마디로 앞으로 수천 년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질투심과 외경심을 지니고 이 고도로 완성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전쟁의 고전적인 시대, 가장 위대한 척도(수단, 재능, 원칙)를 지닌 학자들과 민중들 모두가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것에 대해 우리는 나폴레옹에게(민족간의 “박애”와 보편적인 아름다운 마음의 교류를 목적으로 삼았던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의 영광이 자라난 민족 운동은 나폴레옹에 대한 반동일 뿐이며,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남성이 다시금 유럽에서 상인

과 속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교와 18세기의 열광적인 정신, 그리고 특히 “근대의 이념”에 의해 응석받이가 된 여성들까지도 지배하게 된 공로로 나폴레옹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근대의 이념과 문명을 개인적인 적으로 여겼던 나폴레옹은 이 적의를 통해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계승자임을 입증했다. 그는 고대적 본질의 한 조각을,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화강암 같은 한 조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의 고대적 본질이 마침내 또한 민족 운동의 주인이 되어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폴레옹의 상속자와 계승자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 사람들이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하나의 유럽을 원했다. 그것도 지상의 지배자로서의 유럽을. (361쪽 이후)

나폴레옹이란 이름을 일곱 번이나 언급한 잠언이다. 그만큼 나폴레옹 찬양으로 일관한다. 니체가 그를 이토록 좋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가 남겨놓은 글들을 읽으며 나폴레옹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 보자. 일단 제목이 희망에 차 있다. “유럽의 남성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 유럽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담긴 제목이다. 남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전쟁 시대이다. 싸움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힘이 필요한 시대이다.

도입부는 상당히 긴 만연체로 쓰여져 있지만 줄여서 말하면 후손들이 “질투심과 외경심”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될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것을 우리는 나폴레옹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유럽에 전쟁을 끌어들었고, 이 전쟁의 시대는 훗날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경쟁국들이다. 그 경쟁국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관계를 연상하면 된다. 항상 역사가 함께 겹치는 그런 국가라는 얘기다. 우리가 독도를 두고 서로 다른 역사적 의견으로 충돌을 빚고 있듯이 이들 두 나라 사이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니체는 프랑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환영을 받을 일이 못 된다. 아니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어쩌면 니체가 프랑스를 이토록 감싸주었기에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니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그의 철학을 이해하여 급기야 실존주의(Existentialismus)를 탄생시켰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폴레옹의 시민군은 원래 혁명군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부터 발발하게 되는 프랑스 대혁명은 귀족과 시민이라는 세기의 대결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한 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전쟁이다. 1918년 1차 세계대전과 함께 귀족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소위 역사의 뒤편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세력은 시민이다. 세상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알프스의 장크트 베른하르트(Sankt Bernhard)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역사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그림(1800).

변화가 일어나는 데 백 년이나 걸렸다. 19세기 전체가 귀족과 시민의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나폴레옹의 전쟁은 유별나다.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귀족 대 시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침공해오는 나폴레옹 군대를 향해 여러 나라의 시민들은 입장이 묘했던 것이다. 대놓고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몇몇 지식인들은 대놓고 찬양가를 부르기도 했다.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해 《영웅(Eroica)》(1803/1804) 교향곡을 바쳤고, 독일의 대문호로 칭송을 받고 있던 괴테는 나폴레옹을 접견하기도 했으며, 철학자 헤겔은 1806년 독일을 점령하고 예

나로 입성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바라보며 친구에게 이런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말을 타고 도시를 답사하고 있는 이 황제를 - 이 세계영혼을 - 나는 보았다네. 말 위에 앉아서 어느 한 곳을 응시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런 사람을 본다는 것은 실로 멋진 느낌이었다네.”²⁾ 이런 느낌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영웅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했다.

다시 니체에 집중해보자. 《즐거운 학문》이 출판되던 시기는 1882년, 즉 세기말로 향해 가는 상황이다. 19세기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 귀족은 건재하지만 시민의 성장도 만만치 않은 시점이다. 귀족은 퇴폐주의(Dekadenz)로 치닫고 시민의식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었다. 날로 허약해져만 가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그 앞에서 눈치만 보고 용기를 못내는 대부분의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화를 인정하고 또 그 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가 바로 니체다. 그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나폴레옹의 정신과 연결시켜놓는다.

학자들이 니체부터 현대 철학이라고 부르는 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니체가 “그리스도교와 18세기의 열광적인 정신, 그리고 특히 ‘근대의 이념’”을 끝장내고자 했고 또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근대의 이념은 기독교 정신과 함께 늘 국가나 정의 혹은 진리 내지 법의 정신으로 일관했다. 학문 전체가 늘 기독교의 권력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이런 근대의 이념에 권태를 느낀 철학이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다. 근대의 이념에 의해 유럽은 늙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늙은 유럽에게 청춘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영리한 근대의 이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근대의 이념과 문명을 개인적인 적으로 여겼던 나폴레옹은 이 적의를 통해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계승자임을 입증했다.” 니체의 시선은 나폴레옹을 넘어 르네상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세를 넘어 고대로 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고대의 이념을 되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제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끌어들이고 있는 강물의 계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고대 중에서도 에피쿠로스처럼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했던 이념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중세는 싫다. 신 중심 사상으로 일관하며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낙천론에는 거부감을 드러낸다. 중세 이후는 근대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민의 세력이 등장한다. 물론 르네상스에도 한계가 있다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의 범주 안에서 고대의 이념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제 변화의 강물은 니체까지 왔다. 니체는 나폴레옹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언젠가는 남성이 다시금 유럽에서 상인과 속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니체는 나폴레옹을 통해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대적 본질의 한 조각을,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화강암 같은 한 조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단단한 한 조각! 고대의 본질! 그것을 남성성이라고 본 것이다. 지배력으로 충만한 남성성 말이다. 의지로 충만한 본성 말이다. “나폴레옹은 하나의 유럽을 원했다. 그것도 지상의 지배자로서의 유럽을.” 세상을 지배하는 유럽! 그런 유럽을 창조해내기 위해 전쟁의 시대를 연 나폴레옹에게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런 대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극의 탄생》에서 염원했던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비극, 34쪽)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상향에 대한 메시지일 뿐이다.

니체는 고대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염원한다. 나폴레옹은 고대의 이념 중에서 한 조각을 인식했고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 노력을 알아봐준 것이 바

2) ,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156쪽.

로 니체였다. 그는 나폴레옹에게서 물려받은 그 고대의 한 조각 혹은 그 “한 조각의 고대적 본질이 마침내 또한 민족 운동의 주인이 되어 긍정적인 의미에서” 계승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물론 니체가 예언했던 역사의 변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반성할 대목이 너무도 많이 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상인과 속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현대인은 여전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아직도 상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또 스스로 속물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현대는 자신의 힘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유행에 관심을 가지고 신상품에 열정을 품는 한 니체의 예언은 아직 진행형에 불과할 뿐이다. 니체가 꿈꿨던 진정한 미래는 이 ‘상인과 속물’을 제대로 지배하는 강력한 주인이 등장할 때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신성한 웃음을 머금고 행복한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미래가 그때 도래하게 될 것이다.

4. 남자와 여자 사이의 편견과 대립은 극복될 수 없다

현상 속에서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두 가지의 존재 형태로서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다. 궁극적인 한계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받아들이는 현실인식이다. 늘 남자 아니면 여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삶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인식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세계관, 즉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편견과 대립의 상황에 대한 니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양성^{兩性}은 사랑에 대하여 각각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 나는 일부일처제의 편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용의가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있어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동등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성이 사랑의 조건 중 하나는 하나의 성이 다른 성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사랑”에 대한 같은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이 이해하는 사랑은 지극히 명백하다. 아무런 고려나 유보를 하지 않는 영육의 완전한 헌신(복종뿐만 아니라), 단서나 조건과 연결된 헌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공포를 느끼는 그런 헌신이 여성의 사랑이다. 이처럼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랑은 신앙이다; 여성은 그 외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남성은 여성을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원하며, 따라서 그 자신은 여성적인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완전한 헌신에 대한 요구가 낮설게 느껴지지 않는 남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 그가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처럼 사랑하는 남성은 노예가 된다. 여성처럼 사랑하는 여성은 완전한 여성이 된다...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여성의 정열은 상대방에는 동일한 파토스, 동일한 포기예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만일 양쪽에서 자신을 포기한다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여성은 소유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한다. “소유”와 “소유되다”라는 개념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주거나 내버리지 않고 그 반대로 오히려 힘과 행복과 믿음의 증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성은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 여성은 자신을 내버리고 남성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본성의 대립은 어떤 사회 계약이나 정의에의 최고의 의지를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62쪽 이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왜 이리도 가슴 아프게 읽혀질까. 허무주의 철학은 극복의 철학이 아니던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절망적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다.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영원한 비극이다. 그곳에서는 질서와 혼돈이 공존한다. 안다고 하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고 그곳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남자와 여자가 그런 것이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다.

“양성은 사랑에 대하여 각각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제목부터 이미 편견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두 성은 사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가 가능할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있어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동등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시 생각이 문제가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이 문제가 되니 인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동등권은 불가능하다. 니체의 의견은 단호하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대해서 “같은 감정”과 “같은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감정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의미로 형성된다. 시작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말은 같아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다. 남자가 말하는 사랑은 여자가 말하는 사랑과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니체가 말하는 여성의 사랑은 “완전한 헌신(복종뿐만 아니라), 단서나 조건과 연결된 헌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공포를 느끼는 그런 헌신”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랑은 신앙이다: 여성은 그 외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완전한 헌신, 그것도 신앙이 되어버린 헌신이 여성의 사랑이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을 사랑할 때 본능적으로 이런 헌신적 사랑을 원한다. 바로 이 원하는 감정으로 인해 이미 남성은 여성적인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니체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니 천천히 읽어보자. “완전한 헌신에 대한 요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남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 그가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처럼 사랑하는 남성은 노예가 된다. 여성처럼 사랑하는 여성은 완전한 여성이 된다...” 니체는 말을 잠시 멈춘다. 그만큼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 침묵으로 말한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표현되지 못한 말들까지 읽으려는 의지로 독서에 임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처럼 사랑하는 남성은 남성이 아니다’라는 대목이다. 그런 남성은 남성이 아니라 노예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니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대결을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몸의 생김새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외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신체구조상의 우열을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각의 차이를 지적

하고 있을 뿐이다. 남자가 여자처럼 생각하면 노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처럼 생각하면 '완전한 여성'이 된다. 완전한 여성! 이 개념은 니체가 이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다뤘던 것이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완전한 여성은 완전한 남성보다 더 높은 인간 유형이다: 또한 훨씬 더 드문 그 무엇이다." (인간적, 323쪽)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잉태와 창조의 영역에서는 여성이 최고다. 그런데 독자들이 이 생각을 이해나 할까. 니체는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말을 잊지 못하고 침묵한 대목에서 그런 쉬어감이 읽혀지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여성의 정열은 상대방에는 동일한 파토스, 동일한 포기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만일 양쪽에서 자신을 포기한다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밌는 표현이다. 공간이 있긴 한데 내용이 없다. 여성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그 헌신을 원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헌신을 한다는 얘기는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서로가 주는 사랑만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모순일 뿐이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헌신이 먹혀드는 이유는 그 헌신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일 뿐이다. 모성애도 그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성들은 결국 소유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 "여성들은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주거나 내버리지 않고, 그 반대로 오히려 힘과 행복과 믿음의 증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성들은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 여성도 원한다. 하지만 그 욕망은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 "여성들은 자신을 내버리고 남성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차이다.

그런데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허무주의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독서가 아주 중요한 단계까지 온 것이다. 집중을 해야 할 대목이다. 다시 천천히 요약해보자. 니체는 남성도 여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도 남성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기도 하다. 전쟁의 시대에는 남성의 본성이 요구된다. 니체는 전쟁을 원한다. 그것은 정신적인 전쟁이다. 생각들 간의 전쟁이다. "이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기 전에 이제까지 획득한 인식의 갑옷을 입기로 하자" (비극, 121쪽)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무주의 철학이 선포하는 전쟁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생각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사이의 전쟁이다. 극복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생각과 극복하여 자유를 쟁취하려는 생각 사이의 전쟁이다. 노예를 위한 도덕과 주인을 위한 도덕 사이의 전쟁이다. "유럽의 남성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 (361쪽)은 굳건하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다. 성차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남성적인 본성을 여성적인 본성보다 우위에 놓고자 하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종속적인 정신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사의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성이 그 무엇보다도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일상에서 당연하게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를 오가며 방황한다. 극복될 수 없는 운명적 방황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를 넘는다. 극복의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귀찮아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등, 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자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의도이다.

극복은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극복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의 이행은 매일 반복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는 얘기다. 밀물과 썰물처럼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 의식조차도 결국에는 한계를 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전혀 다른 존재를 창출할 수 있는 완전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창조적 삶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린다”³⁾고 한 괴테의 발언처럼 남성성으로 평생을 보낸 자는 마침내 여성성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남성성은 여성성을 추구하고 여성성은 남성성을 구원한다.

사랑은 좋다. 늘 혼자라는 운명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 최고의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뿐이다.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어떤 천국도 부럽지 않다. 그 한 사람이 없어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다. 일상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사랑에는 멈춤이 없다”(인간적I, 328쪽)고 했다. 그리고 이 멈춤을 없애주는 힘이 또한 남성적인 본성이다. “남자의 예민하고 의심 많은 소유욕이야말로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이다.”(364쪽) 사랑은 좋다고 했다.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다. 신조차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한일서4:7) 이토록 좋은 사랑을 지속시키고 계속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서 남성적 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진짜 사나이가 되는 데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다. 이런 성적 구별은 소용없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 했다. 사랑이라는 ‘인식의 갑옷’을 입고 전쟁과 같은 일상에 임해야 한다.

5. 만남이 남긴 상처, 고독으로 치유하는 지혜

고독은 병이 아니라 약이다. 이성적 존재는 본성상 밖으로 향하게 한다. 눈을 감기면 뜨고 싶다. 귀를 막으면 듣고 싶다. 눈은 볼 것을 원하고 귀는 들을 것을 요구한다. 눈을 감기고 귀를 막은 뒤 길을 걷게 하면 불안해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허둥댄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밖을 향하고 있는 이성은 또 다른 이성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으로 향하는 이성의 힘이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라지만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명약을 찾아야 한다. 이때 고독이 좋은 약효를 발휘하게 된다. 외로움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온갖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이 외롭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혼자라는 인식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 집구석에 처박혀 눈물을 쏟아내는 거의 모든 상황은 외로워서 그런 거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다.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 거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자신을 울음바다 속에 빠뜨리고 만다.

세상살이가 다 자기 마음처럼만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준다면 살만할 것 같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늘 한계에 직면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곤 한다. 삶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때 약이 되는 것이 고독이다. 자기 밖의 것이 감당 안 될 때는 안으로 기어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 안에서 발견된 해결책이 밖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앉힌다. 그래서 안으로 또 안으로 자기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야 한다. 자기가 보이면 순식간에 눈이 떠진다. 인식의 눈이다. 인식은 느닷없이 온다고 했다. 갑자기 삶이 전혀 다른 세상에 처한 듯이 보인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독의 힘이다.

3) Goethe: Faust. Erster und zweiter Teil, München 13/1992, 351 ; “Das Ewigweibliche / Zieht uns hinan.”

은자隱者가 말하기를, - 사람들과 교제하는 기술은 본질적으로 식사를 하는 (오랜 연습을 전제로 하는) 숙련된 솜씨, 전혀 신뢰하지 않는 요리를 먹을 줄 아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허기진 상태로 식탁으로 간다면 문제는 간단하다(메피스토펠레스가 말했듯이 "최악의 상대는 그대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 -), 하지만 허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는 허기진 상태가 아니다! 아, 다른 인간을 소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364 쪽)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내고 싶을 때 도덕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때 어떤 도덕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 또한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 만남이 힘들 때가 있다. 만남 자체가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이때는 그 만남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바로 도덕적 잣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남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문제도 분명하게 보인다. 대부분의 문제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심각해진다.

도덕의 가장 작은 단위가 교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곳에 도덕이 생기는 것이다. 서로가 합의하면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각서도 쓰게 된다. 그때 누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만남은 불편해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불행의 씨앗이 된다. 삶에 대한 의지를 한쪽은 행사하려 하고 또 한쪽은 그 의지에 희생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한쪽은 마음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자신을 잃고 지속적으로 상대방만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랑은 없다. 익숙함만이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아, 다른 인간을 소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눈물이 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고독은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가치 있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함께 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할 뿐이다. 고독은 과정 속의 한 단계일 뿐이다. 고독은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익혀야 한다.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의 하나다. 교제하는 기술, 그것은 만남의 기술이다. 제대로 된 만남을 위해 이별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삶은 이별을 감당할 때 꽃이 된다.

위의 잠언에서 니체는 식사와 허기라는 비유로 교제를 설명하고 있다.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는 음식과 직면하게 된다. 만약 그 식사시간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 요리를 먹을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기진 상태로 식탁으로 간다면 문제는 간단하다(메피스토펠레스가 말했듯이 '최악의 상대는 그대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 -)." 맛을 느끼게 해준다. 허기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고플 때 만난 음식을 평생 먹어야 한다면 그것도 고생길이다. 취향에 맞게 까다롭게 고른 상대가 아니라면 한 번 뿐인 인생이 험난해진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큰 질문이다. 생철학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누구나 나름의 운명을 타고 났고 그 운명에 맞는 정답은 스스로가 찾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삶이라는 오묘한 수수께끼 놀이다. 삶의 대가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탄생할 뿐이다. 그리고 아무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때로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일 뿐이다.

어느 박식한 책을 앞에 두고, -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고독한 산

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책, 인간, 음악의 가치와 관련된 우리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걸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춤출 수 있는가?” ... 우리는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독자인 것은 결코 아니다 - 오, 한 인간이 어떻게 그 사상에 도달했는가를, 그가 잉크병을 앞에 두고 뱃살을 접은 채, 종이 위로 머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그 사상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얼마나 빨리 알아채는가! 오, 우리는 또한 얼마나 빨리 이런 책을 읽어치우는가! 내기를 해도 좋다, 놀린 창자가 스스로를 폭로하며, 또한 서재의 공기와 천장, 좁은 서재가 스스로를 폭로한다. - 이것이 성실하고 박식한 책을 덮으며 내가 받은 느낌이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안도감을 느끼며... 박식한 학자의 책에서는 또한 거의 언제나 억누르고 또 억눌린 어떤 것이 느껴진다! 어디에선가 “전문가”의 티를 내는 것이다. (366쪽 이후)

흔히 독서에 취미를 붙이고자 할 때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위의 잠언을 추천하고 싶다. 스스로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는 책은 제발 좀 읽지 말라고.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는 모든 생각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놓는다고 해도 구린내가 난다. “잉크병을 앞에 두고 뱃살을 접은 채, 종이 위로 머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써낸 책은 냄새가 난다. 머리를 짜낸 생각으로 채워진 책은 결코 향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난다.

시험공부에 익숙한 인간은 늘 교과서보다는 핵심정리가 잘 되어 있는 참고서를 더 선호한다.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 공부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시험 대비에는 더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족집게 식으로 모아놓은 예상문제집을 풀으며 ‘공부’에 매진해온 정신은 늘 쉬운 해설을 추구한다. 모든 상황에서 설명을 요구한다. 모든 해설과 설명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쉬워야 한다. 쉽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쉽게 쓰여진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진리는 가독성(可讀性)이라는 그물에 걸린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하게 쓰여진 것만이 읽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현대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전문가에 물어보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나아간다. “놀린 창자가 스스로를 폭로하며, 또한 서재의 공기와 천장, 좁은 서재가 스스로를 폭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추천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공부하듯이 읽어댄다. 시험 공부하듯이! 독서 요령까지 배워가면서 읽는다.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정신이 따로 없다. 독서를 통해 노예만 탄생하고 있다.

“‘전문가’의 티를 내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런 책, 즉 “박식한 학자의 책에서는 또한 거의 언제나 억누르고 또 억눌린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판단력은 고사하고 감각조차 조작된 채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 묻지도 못한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험에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을 전제하는 한 독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삶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독서는 목적의식, 즉 시험 준비라는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때에만 실현된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묻기 전에 지금까지 읽어왔던 박식한 책들부터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지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부터 키워야 한다.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니체의 독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니체의 시 <발로 쓰다>를 읽어보면서 그의 생각을 추궁해보자.

발로 쓰다,

나는 손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다
발도 항상 글 쓰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한다
내 발은 확고하고 자유롭고 용감하게
들판을, 종이 위를 달린다 (56쪽)

니체의 글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다. 그의 허무주의는 발의 도움으로 탄생한 것이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춤추면서 탄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책을 읽을 때는 특별한 것이 요구된다. “튼튼한 이와 튼튼한 위장”(56쪽)이 그것이다. “이것을 그대에게 바라노라! / 내 책을 견뎌낸다면 / 나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57쪽) 니체는 스스로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철학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유행을 따르는, 즉 “여론에 맞춰 생각”(반시대, 183쪽)하는 “교양의 속물들”(같은 책, 190)과 함께하는 한 니체는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있다.

허무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정신은 먼 곳에 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니체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런 습관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편한 집을 떠나 불편한 야외생활을 즐길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인간적Ⅱ, 415쪽) 이 명령부터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육지를 떠나 출항”(199쪽)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의 육지와 관계를 단절했다!”(같은 곳)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허무주의가 재밌다.

그래서 “우리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걸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춤출 수 있는가?’” 삶의 현장 속에서 멋과 흥이 충만한 춤을 출 수 있는가? 허무주의 철학이 던지는 질문이다. 삶을 위한 질문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무리 본능”(192쪽)과 “집단의 양심의 가책”(193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본능과 이런 양심으로 충만한 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항한다. “우리는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독자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을 읽지 않을 뿐이다. “‘전문가’의 티를 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책은 거부의 대상일 뿐이다.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⁴⁾고 했다. 니체가 스승으로 간주했던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니체도 생각하는 훈련 그 자체를 더 높이 평가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스스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 독서를 통해 타인의 생각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또 다시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논리로 이해된 것은 시간과 함께 쉽게 잊혀질 뿐이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머리의 한계다. 지식의 한계다. 이해한 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될 뿐이다. 알고는 있는데 쓸모가 없다. 어처구니없는 지식이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시간과 공간으로도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거대한 것이 될

4) , 이동용: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위의 책, 114쪽.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은 이때 형성되는 것이다.

6. 독백의 예술이 만들어주는 삶의 가치

허무주의 철학은 덕, 즉 미덕이나 도덕으로 무장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니체는 “덕으로 무장한 괴물이나 허수아비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180쪽)이라고 단언한다.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도덕이라고 보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는 서로가 필요로 하며 영리한 건축물을 세웠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쉽게 허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스도교처럼 오랜 세월을 걸쳐 완벽하게 건립된 건축물이 - 이것은 로마인들의 최후의 건축이었다! - 단번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353쪽)이다.

도덕 내지 “종교의 대체물”(인간적I, 51쪽)로 니체는 예술을 꼽는다. “예술은 종교가 몰락한 곳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같은 책, 170쪽) 명언이다. 도덕이 무너졌다고 또 종교가 파괴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술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예술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만큼 생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다. 허무주의적 예술론 내지 니체의 예술론은 오로지 삶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예술은 삶을 내용으로 한다.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예술은 삶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혔다. “예술이 삶의 최고의 과제이며 진정한 형이상학적 활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비극, 28쪽)는 것이 니체의 변함없는 인식이다.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예술”(비극, 32쪽)은 그냥 좋다. 삶을 살 만하게 만들어내는 예술이라면 지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세계의 실존은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만 정당화된다.”(비극, 16쪽) 쉽게 얘기하면 세계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 어떤 불평도 세계의 실존에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삶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293쪽) 모든 실망은 자기가 원인이다. “예술은 무엇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을 미화해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참아낼 수 있고 가능하다면 즐거운 존재로 만들어주어야 한다.”(인간적II, 113쪽) 예술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예술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삶을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찬미한다.”(152쪽) 예술가들은 모든 사물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즐거운 학문》은 “해방기의 언어”(23쪽)로 쓰여졌다고 했다. 즉 봄소식으로 총명한 책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예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지금까지는 그저 “정신적 향락”을 유린하는 저 광장한 시장판의 소란”(30쪽)에 휘둘리는 예술만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서서히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회복기의 환자인 우리가 예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예술이어야 한다. 조롱조이며, 가볍고, 일시적이고, 신처럼 방해받지 않고, 신처럼 인위적인 예술, 밝은 불꽃처럼 구름 없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예술이어야 한다!”(30쪽) 참으로 까다롭다. 하지만 모든 조건은 하나로 집결하고 있을 뿐이다. 삶을 위한 것으로. 삶으로.

우리는 예술 작품을 우선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 사유되고 작시되고 그려지고 작곡되고 건축되고 조각된 모든 것은 독백의 예술이거나 증인들을 앞에 둔 예술이다, 후자에는 외양상 독백의 예술로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신을 향한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풍의 모든 서정시가 그것이다! 경건한 신자에게는 고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구분은 우리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예술가의 전체적 시각에 대하여 이보다 더 심오한 구분을 알지 못한다! 예술가가 증인의 눈으로 창

조 중인 자신의 예술 작품을 (“자기 자신”을 -)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계를 잊고 있는가” 하는 구분 말이다: - 후자의 경우가 모든 독백의 예술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 이 예술은 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독백의 예술은 망각의 음악이다. (369쪽)

니체의 눈에는 예술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독백의 예술이거나 증인들을 앞에 둔 예술”이 그것이다. 증인을 앞에 둔 예술! 그것은 고독을 모르는 예술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진정한 고독을 모른다. “경건한 신자에게는 고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 곁에는 늘 함께 있어주는 신이 있다는 믿음이 그런 고독을 방해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반시대II, 410쪽)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홀로 서기를 요구한다. 인간은 혼자임을 자각하게 한다. 개인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혼자라는 사실을 감당해주기를 바란다.

건강회복을 위해 허무주의 철학은 고독을 가르치고자 한다.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28쪽)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고독 속에서 자유는 거목으로 성장해간다. 고독 속에서 성숙한 자만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무엇인가 필요했던 정신은 그 무엇 없이는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만다.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홀연히 일어설 수 있는 자는 잃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잊을 줄 아는 자다.

망각의 힘은 중요하다. 허무주의 철학이 가르치고자 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앞서 명상의 기술을 언급한 적도 있다.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다. 모든 감각을 외부와 차단하는 기술이다.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기술이다. 이성이 요구하는 논리 따위는 잊어버리는 기술이다. 마음은 비우면 맑아지는 거울과 같다. 집착을 버릴 때 망각은 힘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아끼던 물건이라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잊어야 한다. 양심의 가책 없이 망각의 강을 건너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던 동물이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냉정한 정떼기를 가르친다.

늘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술, 즉 ‘증인들을 앞에 둔 예술’은 허무주의 철학이 원하는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혼자서 일어서야 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곁에 누군가 있을 것만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모든 예술은 허무가 닥칠 때 무기력할 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환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상이 깨지면 삶은 순식간에 가치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절벽 앞에 세우는 것이 환상이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험이 닥친다고 했다.

이토록 위험한 ‘증인들을 앞에 둔 예술’의 반대편에 ‘독백의 예술’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무신론이다. 일견 맞는 소리다. 니체도 분명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진부하게도 그저 무신론자, 불신자, 비도덕주의자라고 불리게 놓아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327쪽) 무신론인데 무신론이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을 살 만한 것으로 가르치는 신이 있다면 니체는 당연히 믿고자 한다. 그런 신앙이라면 얼마든지 자유정신에 허락하고자 한다.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차라, 65쪽) 허무주의 철학도 천국을 입에 담는다. 하지만 그 천국이 우리가 인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곳이 아니다. “새 신앙인의 천국은 물론 지상의 천국이어야 한다.”(반시대I, 205쪽) 이 지상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 대지 위에서 춤출 줄 아는 신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지상. 대지. 삶의 현장. 삶이 이루어지는 곳. 허무주의 철학은 우주의 어떤 다른 곳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과 여기를 무시한 이론은 관심이 없다. 물론 먼 미래에는 인류를 위해 큰 공헌

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서는 흥미를 끌지 못한다. 살아가야 할 삶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현실보다는 '먼 곳을 바라보라'는 그런 유혹 말이다. 하지만 40년을 견뎌내고 또 인생 50을 넘기고 나면 앞날보다는 뒷날이 더욱 또렷해지고, 미래의 비전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인식하며 신중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의미에서 노후를 책임지고자 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누구는 '아직도 니체를 읽고 있느냐?'고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아직 니체를 만나보지 못한 독자의 쓸데없는 걱정이다.

다시 무신론 얘기로 돌아가자.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무신론임을 인정하고 있다. "신은 죽었다"(183, 200쪽)고 말하면서 스스로 무신론의 허울을 쓴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내세관에 근본을 둔, 예를 들어 기독교가 말하는 임마누엘의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런 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곁에서 진정한 삶을 영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은 거부한다. 하지만 니체는 신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잣대로 보면 '그게 무슨 신인가?'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허무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장도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믿는 신만이 진짜 신이고 또 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 편견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제 무신론 논쟁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독백의 예술'로 넘어가자. 독백의 예술! 이것은 "세계를 잊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적합한 예술이다. 독백의 예술의 대표적인 예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실려 있던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인간적II 215쪽 이후)와의 대화를 들 수 있다. 이 대화는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방랑자이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이다. 방랑자는 자유롭다. 일상을 떠남으로 보내는 자다. 자유정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독백의 예술'이다.

'세계를 잊고 있는 독백의 예술', 즉 이 예술 속에는 외부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 오로지 자기 안의 세계만이 대화의 대상이 된다. 세계 망각은 "모든 독백의 예술에서 본질적인 것"이 된다. 세계가 완전하게 잊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독백의 예술 또한 완전한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즐거운 학문》은 "해빙기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라 했고 또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23쪽)가 쏟아내는 소리라고 했다. 회복기의 환자가 필요로 하는 예술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쾌활함, 모든 종류의 쾌활함, 또한 예술가로서의 쾌활함이다!"(30쪽) "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잘 잊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술가로서 말이다!"(30쪽) "잊어버리는 자만이 건강한 법이니까."(38쪽) 허무주의와 망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모든 것을 잊었을 때 허무주의적인 춤이 취진다. 진정한 쾌활함의 현상이다.

독백의 예술은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예술이다. 고독 속에서 삶을 강화시켜주는 지혜가 담긴 기술이다. "이 예술은 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독백의 예술은 망각의 음악이다." 그 어떤 기계의 도움도 없이 독백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다. 이 귀는 릴케가 <공>이라는 시에서 언급한 '우리를 듣고 있는 귀'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 이상 귀를 위하지 않는...: 소리가 / 더 깊이 자리 잡은 귀와도 같이 / 우리를, 듣고 있는 척하는 우리를 듣고 있다."⁵⁾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귀가 우리를 듣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방랑자가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듯이.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면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또 무신론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왜 허무주의 철학이 고독을 고집하고 있는지 앞에서 다루지 못한 시 한 편을 읽어보며

5) Rilke: Die Gedichte, Frankfurt am Main u.a. 1998, 972 ; "Nicht mehr für Ohren...: Klang, / der, wie ein tieferes Ohr, uns, scheinbar Hörende, hört."

답을 찾아보자.

고독한 자

나는 추종하는 것도 이끄는 것도 싫어한다
복종? 아니! 지배 - 그것도 아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주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나는 자신을 이끄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산과 바다의 동물들처럼
나를 잠시나마 잊고
아름다운 옆길로 빠져 생각에 잠기는 것
이윽고 나를 먼 곳에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나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유혹하는 것 (48쪽 이후)

고독한 자의 호불호다. 복종? 싫다. 지배? 더 역겹다. 추종도 이쁨도 싫다. 복종도 지배도 모두 증오한다. 두려움도 싫다. 두려움이 싫어서 고독하다. 두려움을 안다면 추종도 복종도 가능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자기 자신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서 따르는 것은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다. “나는 자신을 이끄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고백은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니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을 따르는 것”(39쪽)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오직 너 자신만을 충실히 추종하라 - /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 여유롭게! 여유롭게!”(같은 곳) 또 “‘사나이가 되어라! 그리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을 따르라! 너 자신을!’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 권리를 지녀야 마땅하다!”(170쪽) 이런 명령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의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독한 자의 호불호에 정통해야 한다. 허무주의적인 따름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이 싹을 틔웠다면 대단한 발전을 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따른다? 이것은 아니다. 허무주의 정신은 자유정신이라 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자유정신인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두려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유도 모른 채 느껴지는 두려움은 그저 신을 만들어 내거나 원할 뿐이다. “그리고 공포가 없다면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 악마에 대해 공포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자는 신도 더 이상 필요 없다.”⁶⁾ 그래서 종교에서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공포가 종교를 종교답게 해준다. 신은 인간의 공포심을 먹고 산다고 할까. 신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은 하지만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허무주의 사상은 ‘신은 죽었다’를 선언한 경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을 때만. “이렇게 양심적인 인간으로서만, 오늘날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이자 신을 상실한 사람들인 우리는”(아침, 16쪽) 허무주의자들이라고 또 니체의 독자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허무주의는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이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의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두려움을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

6) <https://de.wikiquote.org/wiki/Lachen>; “und ohne Furcht kann es keinen Glauben geben. Wer keine Furcht mehr vor dem Teufel hat, braucht keinen Gott mehr.” ,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124쪽.



파프너Fafner를 죽이고 그 피를 맛보고 있는 지크프리트Siegfried, 아르투어 락크함Arthur Rackham(1867-1939) 그림.

다. 이런 차원에서 두려움은 자기 실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움이란 게 어떤 건데?”⁷⁾하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영웅 지크프리트는 두려움을 배우기 위해 용龍을 찾아나선다. 바그너식 해석에 따르면 파프너라는 용을 만나려면 그가 사는 “질투의 동굴”⁸⁾로 가야 한다. 두려움을 가르쳐줄 용이 ‘질투의 동굴’에 산다. 참으로 영리한 해석이다. 천재적 발상이다. 질투심은 패배자만이 가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질투의 동굴에 산다는 용 따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야 영웅인 것이다. 허무주의는 그 정도의 정신력을 요구한다. 그 정도의 정신은 되어야 자유정신이라 불릴 만한 것이다. 허무주의의 이상은 모든 것을 극복한 경지에서 실현된다.

지금까지 싫어하는 것은 분명해진 듯하다. 그렇다면 고독한 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보자. 시는 이 말과 함께 반전을 이끈다. 우울

했던 분위기는 여기서 쾌활함으로 채워진다. 좋아하는 것은 모두 네 가지로 밝혀진다. 첫째는 “나를 잠시나마 잊고”자 하는 것이다. 망각의 힘이 다시 부각된다. 삶에 대한 의지는 자기를 잊을 수 있을 때 채워진다. 묘하게도 삶에서는 통하는 논리다. 이성적 존재가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다. 암기와 기억의 힘으로만 알려져 있는 이성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지향하는 힘은 암기와 기억의 힘이지만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힘은 그 반대의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다. 지금까지 기억에 대해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망각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이다.

둘째는 “아름다운 옆길로 빠져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다른 생각이다. 딴 생각이다. 이 생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정답을 추궁하는 그런 집요한 생각도 아니며, 공부를 해야 할 때 요구되는 그런 생각도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옆길로 빠져” 있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생각에 폭 빠져 있는 것이다.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흔들려보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껴보는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다. 낯선 사물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다가서 보는 것이다. 끝에는 나락이 있을 것이라는 바다라 해도 또 안에는 괴물 미노타우로스Minotauros가 살고 있다는 미로라 해도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는 것이다. 그래야 신세계도 발견하고 괴물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옆길! 그런 옆길은 늘 곁에 있다. 허무주의 철학이 임마누엘을 외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대목이다. 아름다운 옆길이 늘 함께 해주고 있다고. 삶의 곁에는 늘 아름다운 옆길이 대기 중이라고. 옆길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옆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는 늘 존재한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옆길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성의 힘이다. 인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성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이성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성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

7) Richard Wagner: Siegfried, Stuttgart 2002, 39 ; “Was ist’ mit dem Fürchten?”

8) 같은 책, 42쪽; “Neid-Höhle / wird es genannt: / im Ost, am Ende des Walds.”

고 남이 인정하는 답을 추궁하며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며 신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게 한다. 이성은 늘 받아들이는 것만 보여준다. 이성이 있어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분명 이성의 힘은 대단하다. 오해는 말자. 허무주의 철학도 또 그 선배 철학인 염세주의 철학도 이 이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두 철학 모두 이성 속에 내재해 있는 다른 힘을 키우고자 할 뿐이다.

셋째는 “이윅고 나를 먼 곳에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고독한 자가 좋아한다는 것이다. 먼 곳으로 방랑하던 자유정신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집 떠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탕자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무엇일까? 허무주의 철학에서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인간적Ⅱ, 415쪽)고 가르칠 때의 오두막은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떠나야 할 집이다. 그것도 떠나고 또 떠나서 목계 된 마지막 오두막이다. 그 오두막까지도 불사르고 떠나라 한다. 돌아갈 가능성조차 남기지 말고 떠나라 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결코 모순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떠남은 돌아옴을 목표로 한다. 여행은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전수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다. 생각의 훈련에서 정점에 도달한 생각의 달인이 보여주는 최고의 기술이다. 떠날 때 홀연히 떠난 정신이 당당하게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온다! 바로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떠나고자 하는 모험 여행의 목적이다.

집을 불사르고 떠날 때는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떠남을 통해 그 이유가 극복되었다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삶을 삶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다. 주변을 탓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자신이 충분히 강했다면 주변 상황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떠나지 못한 자가 잘못일 뿐이다. 미련을 가졌던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집은 좋다. 집보다 편한 곳이 없다. 집에서 마침내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진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권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좋다. 쉴 수 있는 집이라면 좋다. 이런 집이라면 충분히 되돌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잊지 말자. 허무주의 철학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 일방적 논리가 아님을.

마지막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유혹하는 것”이다. 고독한 자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능력이다. 유혹의 힘은 특별하다. 눈치 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상대가 눈치 채면 동정심에 따라주던가 아니면 거부감만 높여줄 뿐이다.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유혹의 대가를 요구한다. 펜테질레아처럼 “유혹하지 못하는 여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라져버리겠다”(인간적Ⅱ, 72쪽)는 의지로 삶에 임해야 한다. 유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야 한다.

유혹할 줄 알아야 한다. 삶으로! 유혹은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유혹의 힘이 발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생철학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허무주의가 던지는 진지한 질문이다. 죽음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은 삶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삶, 그것은 죽음에의 의지를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즐거움, 101쪽)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삶이 보여주는 잔인한 장면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망만큼 삶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다. 실망은 죄악이다.

독백의 예술은 결국 고독한 자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잘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처럼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을까? 자기 망각,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야 하는 이성적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경지 중에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인간이 동물처럼

만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간의 말뚝에 묶여 있으며, 그래서 우울함도 권태도 느끼지 않는다”(반시대II, 290쪽)는 경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울함도 권태도 없는 삶! 공허와 무는 망각으로 실현된다. 그 비결은 동물의 행복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아름다운 옆길이다. 그 길을 통해서만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휴식할 수 있는 곳,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7. 추가된 이름, 강함의 염세주의에서 디오니소스적 염세주의로

니체는 자신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 “강함의 염세주의”(비극, 10쪽)를 염원했었다. “행복과 넘쳐나는 건강함 그리고 삶의 풍요에서 유래하는”(같은 곳) 지적인 편향을 추구했었다. 강해지고 싶다는 의지가 허무주의 철학의 시작지점을 형성한다. 생명은 힘을 요구한다. 그래서 생명력(生命力)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삶도 힘을 요구하게 된다. 힘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모순에 뿌리를 둔 알량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의 경계에는 낭만주의에 대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이 니체에게는 바로 쇼펜하우어요 바그너였던 것이다. 니체와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을 한 자리로 모이게 한 것은 염세주의라는 낭만적인 이론이었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구원이론이었다. 하지만 니체는 삶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염세주의에 정을 둘 수가 없었고 또 《파르시팔Parsifal》(1882)에서 성배를 지키는 기사를 무대 주인공으로 세우는 바그너의 이념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1882년 7월 26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의 《파르시팔》 초연 장면.

성배를 지키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무주의 철학에 반(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는데 신의 피를 받아 보관하는 잔(杯)을 지키겠다? 그것은 니체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신을 찬양하고 신을 섬기는 장면들 앞에서 니체는 숨이 막혔을 것이다. 《파르시팔》이 공연되고 있던 바이로이트의 축제극장은 마치 우울한 공기로 채워진 교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바그너의 음악 속에 정열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은 이런 것이었다. “교회를 가득 채우고, 여성들에게 사랑의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은 바람”(132쪽)이었던 것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처럼 따랐던 정신적 지주 바그너에게 등을 돌려야 했다. 공연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극장을 박차고 나서야 했다. 축제 극장 뒤쪽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숲 속으로 니체는 하염없이 걸어 들어갔다. 얼마나 실망했을까? 죽을 때까지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관계이기에 하는 소리다. 헤어져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떠나야 할 운명이라고. 그래서 당당할 것만 같은 데 광기를 직면한 자유정신은 또 다시 바그너를 떠올린다.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가 그 결과물이다. 잊지 못할 사람, 잊혀질 수 없는 스승이었던 것이다.

다시 낭만주의에 집중해보자. 니체는 스스로 낭만주의를 오해했다고 고백한다.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 내 친구들 중에는 내가 처음에는 몇 가지 심각한 오해와 과대평가를 지닌 채 희망에 부풀어 현대 세계에 다가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372쪽) 처음에는 그랬다. 처음에는 니체도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한 학기만에 신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말

았다. 쇼펜하우어도 그랬고 바그너도 그랬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다가섰지만 실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 애증의 관계는 허무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이 있었기에 허무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이 있음으로써 허무주의도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신이 없는 허무주의는 무용지물이다. 염세주의가 있음으로써 허무주의도 있는 것이다. 염세주의가 없는 허무주의는 허무맹랑하다. 바그너가 있음으로써 니체도 있는 것이다. 젊은 날의 “오해와 과대평가”는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모범을 찾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인식은 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같았던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때가 있다. 바다같았던 어머니도 불안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것이다. 진정한 현실 인식은 눈물을 쏟아내게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지고 뚫으면서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인연이 되어 따라다닌다.

니체는 스스로 고백했다. 그것은 오해였다고. 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렸다. 해석이 해석을 낳기 시작하면서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어버렸다. 마치 죽일 놈 살릴 놈하면서 등을 돌린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그랬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띄는 현상일 뿐 내면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그 심정을 읽어내는 글은 많지 않다.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

니체는 선배들의 업적을 “더 고귀한 사유의 능력, 더 과감한 용기, 더 큰 승리에 빛나는 삶의 충만성의 징후로 이해했다.” 즉 니체는 이 과거의 이해가 바로 오해였던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후 이어지는 문장들의 술어만 모아보았다. ‘여겨졌다’, ‘해석했다’, ‘들었다’,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해했다’로 이어진다. 이해의 물줄기는 오해라는 연못으로 이어졌다. 이 고백에 집중해야 한다. 니체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낭만주의를 오해했는지 선명하게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정한 예술과 철학은 어떠한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예술과 철학은 성장하고 투쟁하는 삶에 봉사하는 치료제요,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과 철학은 항상 고뇌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고뇌하는 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삶의 지나친 충만성으로 인해 고뇌하는 자들로,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비극적인 견해와 통찰을 원한다. - 다른 하나는 삶의 궁핍으로 인해 고뇌하는 자들로, 그들은 휴식, 고요, 잠 잠한 바다, 예술과 인식을 통한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거나 도취, 경련, 마취, 광기를 추구한다. 후자의 이중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 모든 예술과 인식에 있어서의 낭만주의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하고 두드러진 낭만주의자들이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이다. (373쪽)

니체가 오해를 한 부분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글이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선이 보이는 글이다. 앞서 오해했던 부분을 일일이 나열했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일단 니체는 예술과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밝힌다. “모든 예술과 철학은 성장하고 투쟁하는 삶에 봉사하는 치료제요,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명상치료, 문학치료, 철학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과 철학은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과학, 법학, 의학 등 실용학문들이 삶의 외적 요소를 담당한다면 예술과 철학은 인간의 내적 영역에서 할 일을 찾아내고 수행한다. 명품과 학점이 삶의

현상을 채색해준다면 인성과 인격은 삶의 본질을 채워준다.

예술과 철학은 삶을 삶답게 만들어준다. 모두가 외모에 신경을 쓸 때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내면에 신경을 써주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예술가들이고 철학자들이다. “예술과 철학은 항상 고뇌와 고뇌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고민하는 행위는 좋다. 고뇌는 힘들지만 그런 행위가 삶을 아름답게 해준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고민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삶의 지나친 충만성으로 인해 고뇌하는 자들로,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비극적인 견해와 통찰을 원한다. - 다른 하나는 삶의 궁핍으로 인해 고뇌하는 자들로, 그들은 휴식, 고요, 잠잠한 바다, 예술과 인식을 통한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거나 도취, 경련, 마취, 광기를 추구한다.” 니체는 후자를 지양하고 전자를 지향한다. 삶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감정이라면 지나쳐도 좋다고 말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궁지로 몰고 가는 감정을 경계한다. 삶의 궁핍한 감정에서 쏟아낸 말들을 경계한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원인이 된 말들을 경계한다. 지금과 여기가 감당이 안 돼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광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이런 “이중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 모든 예술과 인식에 있어서의 낭만주의다.” 이제 니체는 확실하게 낭만주의와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그런 감정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허무주의 철학은 긍정의 형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학문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즐겁지 않다면 인생은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이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니체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려서는 낭만주의를 모범으로 따랐지만 그것은 오해의 소치였을 뿐이라고. 깨달음이 오고나면 이전의 자기 모습은 대상화가 되면서 비판을 이끌게 된다. 그것은 바이러스를 쏟아내는 속 시원한 설사와 같다. 느낌이 좋다.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건강한 느낌이다. 건강이 회복되는 즐거운 느낌이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며 따랐던 인물들이 다름 아닌 ‘낭만주의자들이었구나!’하는 인식은 홀로 서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게 해준다. 그러면서 니체의 정신에는 전혀 다른 느낌이 지배한다.

전혀 다른 염세주의, 고전적 염세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예감과 전망이다. - 이것은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나의 특성이며 고유성이다, “고전적”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너무 똥아빠지고 둥글어져서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나는 이 미래의 염세주의를 디오니소스적 염세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 이것은 도래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다. (375쪽 이후)

무엇이 ‘고전적’인가?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견해로 가득 채워짐을 느낀다. 더 이상 받아들이 수 없는 내면을 만들어내고 마는 개념이라는 얘기다. 니체는 이런 개념에 대해 “이 단어는 너무 똥아빠지고 둥글어져서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배타적이 되면서 생각이 고착되어 버렸다면 그런 개념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을 떼어내야 한다. 스스로가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스스로 극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순간이다. 스스로가 ‘원래’니 ‘원조’니 하는 말

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적 태도다.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 마침내 텅 빈 종이 되는 것이다. 타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타인의 정신에 힐링의 순간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서로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 희망과 꿈을 선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집착은 상대를 괴롭힐 뿐이다. 사악한 뱀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를 무는 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인간적II, 53쪽)는 사실을 명심하자. 스스로 남의 말 꼬리를 무는 존재였다면 그러지 않으면 되고 또 스스로 말의 꼬리를 물렀다면 원한으로 삶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망각으로 자기 삶에 새로움을 형성하면 되는 것이다.

구속하고 규정하려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때 정신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밖으로 향한 마음은 안으로 향해야 한다. 구속과 규정의 욕망이 스스로에게 향해질 때 자유가 부여된다. “구속된 마음, 자유로운 정신 -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엄격하게 묶어 잡아두면, 자신의 정신에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이미 한번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선악, 112쪽) 성경식으로 말하면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누가복음6:42)는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예감과 전망”의 철학이다.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한 철학이다. 한마디로 미래의 철학이다. 그래서 한없이 즐겁기만 하다. “이것은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나의 특성이며 고유성이다.” 즐거운 학문! 그것은 허무주의 철학의 특성이며 고유성이다.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을 준비해둔 철학이다. “귀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니체의 글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렸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그렇게 불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개념이 더 낫겠다고 느낀다. ‘고전적’이라는 소리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 “나는 이 미래의 염세주의를 디오니소스적 염세주의라고 부르려고 한다 - 이것은 도래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다.” 미래의 개념이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니체의 독자는 니체에게서 배우고 니체에게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한다. 돌아올 수 있는 다리란 다리는 모두 끊어버려야 한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자가 허무주의자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자가 진정한 허무주의자다.

‘미래의 염세주의’! 니체가 염원하는 개념이다.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는 ‘강함의 염세주의’(비극, 10쪽)를 추구했었다. 그리고 ‘낮선 목소리’(같은 책, 13쪽)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문헌학적 입장에서 발굴의 정신으로 철학에 임한다. “거의 모든 것이 발견되고 발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발견되고 발굴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기 하나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의 문제, - 즉 우리가 ‘무엇이 디오니소스적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한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전혀 인식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의 문제다...”(같은 책, 14쪽) 처녀작부터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온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에 이르러 자신의 철학을 ‘디오니소스적 염세주의’라고 부르기를 자처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디오니소스적 염세주의’라고. 허무주의 철학은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획득한다. 그것은 ‘강함의 염세주의’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말라.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래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저 “예감과 전망”의 수준일 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 해당한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나무다. 즉 무엇이 디오니소스적인지 무엇이 그리스적인지 등을 추궁하는 한 이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날 것이다. 질문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다. 관심을 쓰면 쓸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나무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한다! 이것이 우리의 불길한 숙명이라 할지라도 -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번개에 가까이 다가가며 살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그것을 명예로 간직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 가지거나 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높이의 숙명, 우리의 숙명... (377쪽)

번개에 가까워지고 있는 불길함!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숙명이다. 하지만 그 불길함은 명예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번개를 맞는 아픔은 지극히 명예로운 것이다. 번개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이 준비되어 있다면 무엇이 문제라. 번개는 각자가 맞아야 한다. 높이 자라나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번개를 나눠 맞을 수는 없다. 운명을 나눌 수 없듯이. 깨달음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깨달음을 나눠가질 수는 없다. 늘 깨달은 바를 말로 설명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함께 나누고 싶지만 그것은 늘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생각으로 이해된 것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논리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원한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번개를 맞는 수밖에 없다.

8. 떠날 수 있는 자가 하는 말

자유는 떠나는 자에게 주어진다. 떠남의 결과가 자유라는 이념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구속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떠날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된다. 떠날 수 있는 자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견뎌낸 자다. 그런데 묘하게도 떠나면 보인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 진리도 보인다.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삶은 진행된다.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떠날 수 없는 자가 구속을 선택한다. 스스로 쇠사슬에 얽매이기를 자처한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떠나야 할 이유를 찾았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모든 복잡한 문제는 떠날 수 없어서 생겨난다. 스스로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해방되지 못한 정신은 스스로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것을 두고 "동정의 변증법"이라고도 말한다. 즉 "괴로워하는 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를 괴롭힌다"⁹⁾는 것이다. 자기연민을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편하자고 쏟아내는 고통들은 타인까지 함께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집안 전체에 우울하고 찌푸린 하늘을 드리우게 된다."^(242쪽) 스스로 집안 전체를 우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인식이 들면 바뀔 줄 알아야 한다. 바뀔 줄 모르면 허무주의 철학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떠남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방랑자"가 말한다, - 우리 유럽의 도덕성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이것을 다른 도덕성, 과거나 미래의 도덕성에 비추어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랑자가 어느 도시의 탑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일을 해야만 한다. (388

9) Rüdiger Safranski: Nietzsche. Biographie seines Denkens, Frankfurt am Main 5/2010, 189 ; "Dialektik des Mitleids - der Leidende tut dem anderen weh, indem er in ihm das Mitleid erregt".

쪽)

편견은 떠날 수 없을 때 형성된다. 남이 자신의 생각을 편견이라고 지적해주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고마운 말을 해준 이에게 감사를 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순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도시 밖에 가면 도시가 보인다. 이 진리를 배워야 한다. 눈을 감고 자기 밖으로 나가보자. 그러면 자기가 보인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형성해 준 생각들도 보인다. 생각조차도 밖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는 모든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다!”^(227쪽) 자기 안의 다른 목소리 듣기!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바다.

허무주의 철학은 미래의 철학이라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 이후’에 대해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새로 태어난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식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 그 이름으로 불려진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허무주의 철학은 조금 야속한 느낌도 든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하고 다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떠오르는 명언 하나가 있다.

어느 누군가가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89쪽)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다. 스스로가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여 있을 때가 더 많다. 스스로가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더 많다. 스스로가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청아한 소리를 낼 수 없다. 좋은 텅 비었을 때 맑은 소리를 낸다고 했다. 정신이 자유로울 때 맑음으로 가득 찬 내공의 소리를 들려준다.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있어도 스스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쓸모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 ‘선생님 말씀은 곧 진리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배움이 이루어진다. 열정이 있어야 배움이 가능해진다. 배우고자 할 때는 그래야 한다.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배움이 실현된다. 자기 안에 공^공과 무^무가 가득 차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때는 말 한마디도 천둥처럼 들린다.

또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한다. 스스로 얽매임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도덕의 역사는 도덕적이지 않다. 모든 진리의 역사는 진리와 상관이 없다. 허무주의 철학은 밀물과 썰물의 새로운 법칙을 이해할 때에만 번개가 쳐준다. 번개를 맞았다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천둥은 늘 한참 뒤에야 울리기 때문이다. 정신의 영역에서는 그 천둥의 소리가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울리기도 한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마침내 부모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있다.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너무 늦게 온 깨달음은 ‘개굴개굴’하며 우는 청개구리처럼 평생을 목 놓아 울게 할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을 지향하는 철학이다. “강인한 건강을 향한 의지”^(인간적1, 15쪽)로 충만한 철학이다. 자기 삶에 주인의식을 지향하는 철학이다. “너는 너의 주인이며 동시에 네 자신의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다.”(같은 책, 17쪽) 주인이 되지 못한 정신은 자유정신이 아니다. 구속과 자유, 얽매임과 풀림, 밀물과 썰물, 만남과 떠남, 먹음과 배설 등 모든 것은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은 질병과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을 지향하고 또 건강 없이는 읽혀질 수 없는 철학이다.

위대한 건강. - 우리 새로운 자, 이름 없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자,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의 조산아인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건강을, 이전의 어떤 건강보다도 더 강하고 더 능란하고 더 질기며 더 대담하고 더 유쾌한 건강을 필요로 한다. 종래의 가치와 소망의 전 영역을 체험하기를, 그리고 이 이상적인 '지중해'의 모든 해안을 항해하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지닌 자, 이상을 발견하고 정복하는 자가 어떤 기분인지를, 예술가와 성자와 입법가와 현자와 식자와 경건한 자와 옛 방식으로 신이 들려 괴상한 자가 어떤 기분인지를 자기 고유의 경험이라는 모험을 통해 알려는 자! 이런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필요하다, 즉 위대한 건강이 - 이것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만 아니다,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계속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건강은 계속해서 포기되고 포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392쪽)

목적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목적이 발목을 잡을 때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목적을 찾아야만 한다. 목적의식이 갈 길을 걷게 해줄 것이다. 길을 잃지 않고 버티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은 달성된 이후에는 뒤에 돌 줄 알아야 한다. 도시를 보려면 도시를 떠나야 하듯이 목적 또한 뒤에 두고 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한 권의 책으로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다.

“새로운 목적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필요”로 하는 철학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그 수단은 건강뿐이다. 건강이 전부다.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제대로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 니체의 철학은 항해를 원한다. 항해를 하게 하는 철학이다. 대양이 곁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철학이다.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199쪽) “이 이상적인 '지중해'의 모든 해안을 항해하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지닌 자”는 니체의 독자다. 니체가 보여준 대양을 곁에 두고 항해를 감행하는 자이다. 모험여행! 신세계를 알게 해줄 여행이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허무할 뿐이다. “자기 고유의 경험이라는 모험을 통해 알려는 자”가 니체의 독자다. 자기 고유의 경험이라는 모험! 이 말을 곱씹어야 한다. 대양을 곁에 두고 모험여행을 떠나려는 자는 이 말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자기 고유의 경험이라는 모험! 떠나야 할 여행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무슨 여행을 떠나야 할지를 지금 당장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고유의 경험이 아닌 것이 있던가? 있다! 이것이 허무주의의 가르침이다. 자기 고유의 경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의 경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타인의 경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정신을 병들게 한다. 질병이 깊을수록 자기 고유의 경험은 요원하다. 그런 여행은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항해를 준비하라! 떠날 준비를 하라!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터전을 버릴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건강'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건강은 일회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끊임없이 버리고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몸이 생명을 다 할 때까지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계속 획득해야만 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건강은 계속해서 포기되고 포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깨뜨리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고통을 겪을수록 힘은 커져만 갈 것이다. 육체도 정신도 강해져만 갈 것이다. 근력(筋力)도 정신력(精神力)도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만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과 더불어 위대한 진지함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진정한 의문부호가 비로소 찍힐 것이다, 영혼의 운명이 바뀌고,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 (393쪽)

감격적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 말이 이제는 염세적으로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허무주의적 발언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은 지극히 희망적이다. 하나의 공연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임하면 된다. 삶이 비극이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0) 성경에도 이런 소리가 있다. 두려움은 믿는 자의 것이 아니다. 허무주의적 신앙이라면 대지와 그 대지 위에서 펼쳐지게 될 삶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새 신앙인의 천국은 물론 지상의 천국이어야 한다." (반시대, 205쪽) 즐거워해야 할 이유다. 기뻐해야 할 이유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극을 감당할 위대한 건강뿐이다.

에펠로그, -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음울한 의문부호를 천천히 그려내고, 나의 독자들에게 올바른 독서의 미덕을 - 오, 이것은 그 얼마나 잊히고 알려지지 않은 미덕인가! - 환기시키면서 조우하게 되는 사실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활발하며 짓궂은 요정 코볼트의 웃음이 내 주위에서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것이다! 내 책의 정령들이 나를 급습하여, 내 귀를 잡아당기고, 내게 질서를 지키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소리친다, -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 해라, 이 까마귀처럼 시켜면 음악을 그만 해라, 밝은 아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은가? 초록의 부드러운 땅과 잔디, 춤의 왕국이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기뻐해야 할 좋은 시간이 일찍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 아침의 노래를 불러주는 자, 햇살처럼 밝고 가볍고 날개 달린 노래, 귀뚜라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 초대하여 함께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노래를 불러주는 자 그 누구인가? 오, 그대 은둔자, 미래의 음악가여, 그대의 황야에서 지금까지 그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런 비밀에 가득 찬 소리, 무당개구리의 울음소리, 무덤의 소리, 마모트의 휘파람 소리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농부의 피리 소리가 더 낫다! 아니다! 그런 음조가 아니다!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음에 맞춰 노래 부르자!" - 참을성 없는 친구들이여, 그것이 그대에게 더 마음에 드는가? 그렇다면 좋다! 누가 그대들의 뜻을 거스르려 하겠는가? 내 피리는 이미 대기하고 있다, 내 목청도 그렇다, - 조금 거친 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참아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산중에 있다, 그대들이 듣게 될 노래는 적어도 새로운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대들이 가수를 오해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이것이 "가수의 저주"라는 것이다, 그의 음악과 곡조를 더 분명히 들을수록, 그의 피리 소리에 맞춰 더 잘 춤출 수 있다, 그대들은 그것을 원하는가? ... (394쪽 이후)

《즐거운 학문》에 실린 마지막 잠언이다. 이후에는 또 다시 비유가 난무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된 몇 편의 시들이 실려 있을 뿐이다.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맴돈다. "그대들은 그것을

원하는가? ...” 말을 잊지 못하는 니체의 마음이 읽혀진다. 간절함이다. 그것을 원해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춤을 추고자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춤추고 싶은가? 그러면 음악을 들을 귀를 열어놓아라! 허무주의 철학이 들려주는 음악은 이 귀를 위한 음악이 아니다. 이 음악을 위해서는 특별한 귀가 필요하다. 새로운 귀다.

“그대들이 듣게 될 노래는 적어도 새로운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대들이 가수를 오해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이것이 ‘가수의 저주’라는 것이다.”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해를 감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대들이 오해한다고 무엇이 대수겠는가!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허무주의 철학에 드리운 저주의 그늘은 벗어날 수 없다. 수많은 독자들이 오해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니체는 이미 철두철미하게 예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새의 판결”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시인이라고? 네가 시인이라고? / 네 머리가 그리도 멍청하단 말이니?”^(19쪽) 네가 그러고도 시인이라고 불리고 싶니? 아서라! 아서! 니체의 자기비판은 상상을 초월한다.

니체는 “지극히 악의적이고 활발하며 짓궂은 요정 코볼트의 웃음이 내 주위에서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코볼트는 ‘힘들다’고 말할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요괴다. 예를 들어 불안에 대한 상상이 코볼트를 닮아 있다. “불안에 대한 상상은 저 불쾌한 원숭이를 닮은 요괴 코볼트와 같다. 그것은 인간이 이미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또 인간의 등에 뛰어오른다.”^(인간적1, 404쪽)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자. 불안은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코볼트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일랑 말자.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苦海다. 인생 자체가 이미 비극이다. 사는 것보다 더 슬픈 비극은 없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비극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울며 살아야 할까? 아니다. 비극은 춤추는 사티로스극으로 마감한다. 그 비밀을 추궁했던 것이 처녀작 《비극의 탄생》이었다.

인생이 비극이라면 차라리 코볼트의 소리를 들으려 하자. 훗날 니체는 이렇게 노래 부른다. “나는 내 가까이에 요괴 코볼트를 두려 한다. 나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유명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그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코볼트를 만들어낸다. 용기는 웃고 싶은 것이다.”^(차라, 64쪽) 코볼트를 두려워 말자. 오히려 코볼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하자. 삶의 무거운 짐을 지자. 삶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코볼트의 무게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코볼트의 무게는 삶의 무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허무주의의 밥상은 차려져 있다.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남아 있다. “미식가들이여, 내 음식을 맛보시라! / 내일이면 그 맛이 조금 낮게 느껴질 것이고 / 모레면 맛있다고 느껴질 것이다!”^(37쪽) 믿고 먹어보자. 의심일랑 말자. 허무주의라는 음식은 씹기조차 힘든 음식이다. “튼튼한 이와 튼튼한 위장 - / 이것을 그대에게 바라노라! / 내 책을 건넬 댄다면 / 나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56쪽 이후) 니체는 독자들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독한 정신은 친구를 염원하고 있다. 자신의 고독과 운명을 각자가 감당해주는 그런 친구를 동경한다.

“내 피리는 이미 대기하고 있다. 내 목청도 그렇다. - 조금 거친 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참아 주기 바란다!” 내일이면 더 좋게 들릴 것이고 모레면 좋은 소리라고 느껴질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미래를 위한 노래다. 노래로 불려진 철학이다. 《비극의 탄생》을 집필했을 당시 “이 새로운 영혼은 노래했어야 했다”^(비극, 13쪽)고 반성을 했지만 《즐거운 학문》을 집필한 지금 니체의 영혼은 이미 즐거운 노랫소리로 가득하다. “초록의 부드러운 땅과 잔디, 춤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노랫소리다. 춤의 왕국! 니체가 동경하는 이상향이다.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의 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꿈의 제국이다. 즐거운 삶이 환영받는 나라다.